

시민단체 “이원택 후보직 박탈해야”

식사비 대납의혹 권력형 비위 규정 “조개기 결제, 조직적 의도 의심” 민주당·수사기관 엄정 대응 촉구

참여연대전북시민연대는 8일 민주당 이원택 도지사 예비후보와 김슬지 도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권력형 비위라며 이 후보의 후보직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유력 정치인과 현직 도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공적 자금을 공유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의 일명 ‘조개기 결제’ 의혹을 강력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도의회 법안 카드와 개인 카드를 단시간 내 분할 결제한 것은 조직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전제해 뒤 “도민 혈세를 정치적 접대비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 비서관을 통한 현금 전달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정책 간담회에서는 주장은 비상식적인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번 사안은 공적자금의 사적 유용 의혹이 결합한 권력형 결탁사건이며 선거를 앞두고 금전적 편의를 제

공, 수수한 불법 정치 행위 의혹이다”며 “도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 윤리 붕괴사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에 이 후보의 자격을 즉각 박탈할 것과 수사기관의 신속하

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당사자인 김슬지 도의원은 “해당 식사 자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고창 지역 청년들과 이 의원의 만남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 의원이 자리를

뜨기 전 비서관이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식비 15만원을 현금으로 갖고, 사흘 뒤 식당을 다시 찾아 전체 금액을 업무추진비 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장정철 기자



미생물산업 인프라 핵심 거점 본격 가동 전북도는 8일 정읍에서 민선시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학수 정읍시장, 농식품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개소식을 열었다.(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 고발 접수

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 경선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주류·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8일 전북경찰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슬지 도의원 등과 함께 참석한 모임의 술·식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장정철 기자

이 의원은 전날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로 제가 주최한 자리가 아니었고, 개인 식사 비용은 직접 지불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신속한 수사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하는 등 연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조국 “민주당, 전북도민에 백배 사죄해야”

전북지사 경선 의혹에 민주당 성토 재보선출마시사 “잡지않은곳선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늘는 것은 참지 못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제가 잡으러 가겠다”고 8일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제 출마지는 다음 주 정도 발표할 예정으로 보통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들의

대리비, 식사비 대납 등 잇따른 금품의혹과 관련, “전북도지사 후보 3명 중 1명은 제명됐고, 1명은 감찰이 시작된 것 같다. 유사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운을 뗀 뒤 “돈 문제로 제명되거나 제명될 위기에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전북도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자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을 할 경우 후보를 안 냈지만, 이낙연 대표 때는 후보를 냈다”며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의 선택을 할 것인지, 이낙연의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이원택 무혐의 석연찮다” 경선 중단 압박

안호영 국회의원은 8일 오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는 술값·식사비 대납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지사 경선후보 이원택 국회의원에 대해 석연치 않은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후보 경선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의혹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바탕 위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우선 “검증 자체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7일 오후 12시 38분 언론사 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졌고, 당일 오후 4시 30분경 민주당은 최고위 개최 직전 언론공지를 통해 당대표의 긴급 윤리감찰 지시 사실을 알렸다”며 “따라서 이원택 의원의 대납의혹 감찰에 소요된 시간은 이날 저녁 및 오늘 아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원택 의원과 대납을 실행한 김슬지 의원 및 참석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었는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모임 현장에서는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는 과정이 진행됐고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 간담회 자리”였다고 적었다가 돌연 그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모임 도중에 빠져나왔다는 이원택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이원택 의원이 식사 후 청년들과 셀카를 찍고 단체사진까지 찍었으며, 이 단체사진은 언론을 통해 이미 공시됐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문제의 모임이 이원택 의원을 위한 자리라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식사비 지불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김슬지 의원이 며칠 후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법안카드로 조개기 결제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감찰단은 ‘현재 혐의없음’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최고위에 보고하고, 최고위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원택 의원에게는 ‘추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중적 결정을 내린 반면, 비용 대납

을 실행한 청년 정치인 김슬지 도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감찰계획을 결정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결정으로 전도가 유망한 청년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감찰 완료 후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도 향후 문제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이원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이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된 상태”며 “만약 선관위와 경찰의 수사 결과 이원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후보 선출 후 민주당이 겪을 혼란은 물론 전북도청에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 우려했다. 특히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두지 않고 도지사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전북도민들과 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투표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조치로 가장 큰 핵심은 식사비를 결제한 김슬지 도의원이 이원택 의원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재감찰을 통한 정확한 진상 파악과 후보경선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바로 만약 신속한 재감찰과 경선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당에 있다는 점”을 강력 경고했다. /장정철 기자

교육단체 ‘밀라노 출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도교육청 ‘예산반납·절차문제없음’

전북 지역 교육단체와 시민사회가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노 전북교육청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은 8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권한대행의 부적절한 출장에 대해 외부 독립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지난 2월 진행된 출장의 공식 인원은 5명이었으나 개막식과 공연 관람

비용은 7명 기준으로 지불됐다”며 “지출 결의서에 여행사 수수료가 중복 반영된 점 등을 볼 때 공무와 무관한 외부 인력이 포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장 경비의 출처를 문제 삼으며 “해당 출장비는 고위 간부 여비가 아닌 학생 체육영재 육성 예산에서 전용됐다”며 “일선 학교의 학생 기본 예산은 삭감하면서 교육청 최고 책임자는 학생 예산을 유용해 외유를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진행 중인 자체 감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체는 “당초 출장을 승인했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소속 위원이 현재 해당 사안 조사를 총괄하는 감사관”이라며 “본인이 승인 과정에 참여했던 사안

을 본인이 다시 감사하는 ‘셀프 감사’ 구조를 규탄하며 교사 370여 명의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식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밀라노 경기 개막식은 온라인 구매가 4장까지만 가능했고, 8만 명이 들어가는 대형 경기장 특성상 현지 가이드 동행이 필수적이라 2장의 티켓을 추가 결제한 것”이라며 “문제가 예산은 전액 자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감사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을 갖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미생물 산업 거점 가동...그린바이오 '속도'

농축산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개소 200억 투입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기업 입주 기술지원 플랫폼 마련 농생명·그린바이오 경쟁력 강화

전북도가 농생명·그린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을 가동한다. 도는 8일 정읍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생물 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품화·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총 200억 원이 투입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미생물 기반 산업의 집적화와 고도화를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조성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생물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설은 부지 6,348㎡, 연면적 8,549㎡ 규모로, 입주공간 40실과 공동활용 장비, 물류보관 기능 등을 갖춘 종합 지원

플랫폼이다. 입주기업은 계약제 방식으로 최대 6년까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인프라는 2025년 착공 이후 장비 구축과 기업 유치 절차를 거쳐 올해 초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운영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담당하며, 기업 유치와 기술지원,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룰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2017년부터 매년 14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꾸준히 투입해 입주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제품 상용화를 뒷받침해 왔다. 도는 이번 개소를 발판 삼아 미생물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그린바이오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련 분야를 선도하는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 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인프라 개소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북 농생명·그린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이원택 식사비 대납 혐의 없음"

전북지사 후보 경선 예정대로 제3자대납 의혹 일부 조사 지속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원택 전북지사 경선후보의 식사주류비 제3자대납 의혹'과 "이 후보의 혐의가 없어 도지사 후보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 북구 소재 인터블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중견은 현재까지 이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이 후보의 식사주류비 대납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대해 긴급 감찰을

지시했고, 윤리감찰단이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감찰단이 이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들은 뒤에 당사자의 소명 절차도 들었다. 최고위원회는 이 후보에 대한 감찰은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김승지 전북도의원에 대한 감찰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후 다른 사실이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예정된 전북지사 후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진안 용담댐 수변규제 일부 해제... '20년 빗장' 풀려

수변구역 1,251km² 해제 확정 7개 읍면 32개 마을 규제 완화 오염관리 가능 지역 선별 해제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으로 묶여 20년째 각종 개발 제한을 받아온 진안군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진안군 관내 7개 읍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총 1,251km²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오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대상 필지는 총 2,445개에 달한다. 수질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오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용담댐은 1990년 착공해 2001년 준공된 이후 전북과 충청권 일대에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댐 건설 과정에서 진안군 6개 읍·면이 수몰됐고, 약 1만 2,000명(2,800세대)에 달하는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특히 수질 보호를 위해 계획홍수위선 반경 1km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인 111.7km²가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됐다. 식품접객업·숙박업·공동주택 건립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조차 규제 아래에 놓이면서 인구 유출과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다. 제도 개선은 진안군이 2022년 '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수도법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수변구역 해제 요건을 갖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부와

협의를 이어갔다. 2023년부터는 전북자치도가 협력해 관계 부처 협의와 현지 실태 합동 조사를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1,251km²로 결정됐으며, 2025년 11월 기후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로 이어졌다. 수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간 막혀 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생태관광 사업이나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수질 보전과 지역 개발이 상호 공존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도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도와 진안군이 힘을 모아 도



<사진=전북도> 민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다"며 "앞으로도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관리 체계 안에서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식사비 결제 요구나 대납 지시안해"

"허위·조작 보도" 강하게 반발 "간담회 주최도 내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이원택 의원은 8일 '전날 제기된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저는 누구에게도 식사비 결제를 요구하거나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드립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정책간담회는 제가 개최하거나 요청한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경선은 전북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방주도성장의 시대를 열 것인지, 그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라면서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한 언론은 '제가 개최한 행사의 식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면서 "이는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허위이며, 조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즉각 전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도 사실 그대로 소명했다"며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정책간담회였으며, 제가 주최한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원택의원실> 그는 "또한 저와 수행원의 개인 식사 비용을 식당에 별도 지불하였다"며 "간담회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 결제 등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거짓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낡은 정치, 흑색선전에 기대는 비열한 정치를 이번 경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며 "민주당의 경선이 공작과 음해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수사당국과 우리 당에도 요청드립니다"며 "경찰은 즉각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 달라"고 경찰에 엄격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확대... 돌봄인력 수요 대응

익산·고창 등 3개소 추가 지정 교육·취업 연계 원스톱 지원 강화

전북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에 맞춰 아이돌봄 교육기관 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아이돌봄 교육기관은 기존 전주·군산 소재 3개소에서 총 6개소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 ▲전북창업공유지원단(익산) ▲고창아이돌봄교육기관(고창) 등 3개소다. 신규 기관은 2026년부터 약 2년 간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양성 및 보수교육

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이돌봄비가 국가 자격 체계인 '아이돌봄사'로 전환되면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 도내 아이돌봄사는 2025년 말 기준 1,23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양성교육 실적도 2023년 114명에서 2025년 153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약 200명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정철 기자

교육과정은 신규 양성교육(120시간·단축 40시간)과 연간 보수교육(16시간)으로 구성되며, 영유아 돌봄, 안전관리, 감염병 및 아동학대 예방, 현장실습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도는 교육 수요자에 대해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한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연계체계'를 구축해 인력 수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아이돌봄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돌봄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새만금 용수 확보 총력 공급망 점검 나서

전북도는 8일 군산정수장과 옥구배수지 건설현장을 찾아 용수공급 현황과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및 신항만 건설, 기업 투자 유치 확대 등으로 생활·공업용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먼저 새만금 지역 공업용수 공급의 핵심 시설인 군산정수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용량 확대와 공급망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 투자 협약 등으로 기업 입주 수요

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공업용수 공급 능력 확보 필요성을 중점 점검했다. 이어 옥구배수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옥구배수지는 생활용수 1만7천㎥, 공업용수 8천

㎥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5%다. 이순택 도 환경산림국장은 "용수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봄철 산악 안전사고 예방수칙

1. 산오르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 및 산악 안전 장구 착용
2. 산행 중 음주 절대 금지 야간 산행은 되도록이면 자제
3. 사진촬영으로 인한 실족 및 추락사고 주의
4. 산행 전 당일 날씨와 등산로정보 미리 알아두기
5. 부상 및 조난 시 산악위치 표지판 활용, 119 신고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공직사회 첫걸음, 소통능력 강화로 더 끈끈하게!

신규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전주시는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일간 전주시 에너지센터와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신규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 가치 확립과 행정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 초입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직무 지식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공직 가치 △직무 △소양 △전산 실습 △현장학습의 5개 분야, 12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강사진을 초빙한 외부 강의와 전주시 주요부서 팀장의 실무지식 전달 강의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모두 구현했다.

특히 이번 상반기 교육에서는 신규 입



전주시는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규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 가치 확립과 행정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전주시>

용 후 겪는 업무 외의 조직 생활 중 고충을 해소하고 세대간 갈등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세대소통 역할극'을 추가해 그

해 갈등을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규공무원들은 팔복예술공장 등 주요 현장을 찾아 시정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 체험 기회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신규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도와 업무능력을 높이고,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1229명을 대상으로 신규공무원 맞춤형 역량교육을 진행해 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들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신규자들이 공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 운영

교실 밖 환경교육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 기대

전주시 자연초등학교 6학년 학생 대상으로 자원순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이날 전주권 광역소각 자원센터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매립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특히 학생들은 현장에서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환경강사들에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교육

은 자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5월 28일까지 전주시역 6개 초등학교 10개 학급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참여 학교를 모집했으며, 문학초·서천초·아중초 등 학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접수가 마감됐다.

견학은 총 90분 과정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시니어클럽이 협력해 추진하며 시는 행정 지원을 맡았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학생 모집과 차량 지원을, 전주시니어클럽은 환경교육 강의를 각각 담당한다.

시는 이번 상반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일반 시민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2026 전주이팝나무 축제 개최

'2026 전주이팝나무 축제'가 개최된다. 해마다 봄이 되면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 내 낡은 철길 위로 하얀 이팝나무 꽃송이가 쏟아지며 도심 속 숨겨진 꽃터널이 완성된다.

축제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평소 출입이 제한된 복전주선 철길을 이팝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방 구간은 기린대로~신복로 630m 구간과 기린대로~팔복로 670m 구간으로,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팔복예술공장 주변 금학교~신복로 약 400m 구간은 22시까지 야간 개방도 예정되어, 화려한 조명 아래 더욱 몽환적인 이팝나무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또 축제 현장에는 지역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음식·체험·판매 부스 30여개가 운영된다.

여기에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 산단 입주 기업들은 올해도 공장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제공하며 상생의 마음을 더했다.

한편 전주이팝나무 축제 공식 개막식은 5월 1일 오전 10시다.

정소민 기자

팔복예술공장 복전주선 철길 공식 개막식 5월 1일 오전 10시 이팝나무 야경 '이색'

전주시 팔복동 철길이 봄꽃 개화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된다.

이에 오는 25일~26일, 5월 1일~3일 등 총 5일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국립정원문화원-전주시 공동주관 '코리아가든쇼' 조성

덕진공원 일원 '기후재난 시대 회복의 한국정원' 주제 한국 전통정원 현대적 재해석

전주시는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코리아가든쇼'를 덕진공원 일원에 조성해 정원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정원문화원과 전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코리아가든쇼는 '기후재난 시대 회복의 한국정원' 주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전통정원의 미학과 생태적 가치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한국 정원문화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정원 디자인 작품공모를 거쳐 4월 1일 5개 작품을 최종 선정해 정원 조성에 착수했다.

이들 5개 정원은 오는 29일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조성된 작품은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기간 방문객들에게 공개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정원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

앞으로 시는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덕진공원 일원에 서울 우호정원 1개소와 기업정원 4개소, 코리아가든쇼 5개소 등 총 10개의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일상 속 화재 예방' 당부

담배꽂초·향초·음식조리 등 일상생활 속 화재 주의 필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근 일상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며 '담배꽂초, 촛불·향초, 음식물 조리' 등 생활 속 위험요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나 켜둔 채 자리를 비운 향초·촛불, 음식물 조리 중 잠시 자리를 비우는 행동 등은 언제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담배꽂초는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향초나 촛불은 사용 후 반드시 끄고 자리를 비울 때 켜둔 상태로 두지 않기 △음식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사용 후 가스 밸브 꼭 잠그기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서는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꽂초 처리와 조리 중 자리 이탈 금지 등 생활 속 화재 예방 수칙을 직접 안내하며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담배꽂초 등 작은 불씨는 산 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봄철 야외 활동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작은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 관광 발전 전략 전통문화자산 활용한 K-콘텐츠 산업화 전략 과제 제시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의 전통문화자산 '데이터화·IP화·실증·유통' 전략을 제시한 정책브리프 제16호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주의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K-콘텐츠 산업화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자산을 한옥마을과 판소리, 완판본, 한지, 미식, 전통시

장, 생활문화 자산 등이다.

연구원은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개별 작품 중심에서 IP·플랫폼·도시 경험 결합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주의 강점은 자사의 양보다 원형자산의 밀도와 상호연결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원은 현재 전주의 데이터와 권리, 기획, 실증, 거래, 유통을 잇는 가치사슬의 연결 구조가 아직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프로젝트가 투자와 유통, 시민 체

감, 재투자로 이어지는 산업 사다리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원은 정책브리프에서 전주의 비전을 '전통으로 미래를 실감하는 K-콘텐츠 플랫폼, 전주'로 제시하고 △전주형 K-콘텐츠 가치사슬 구축 △K-콘텐츠 창작·실증도시 도약 △전통과 미래기술 기반 콘텐츠의 글로벌 허브 성장 △K-콘텐츠를 일상에서 체험하는 인터랙티브 도시 조성의 4대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원형 DB 구축 수, 권리정리 완료 건수, IP 바이블 수, 파일럿·프로토타입 수, 계약·라이선싱·공동제작 건수, 도시브랜드 효과, 시민 참여율 등을 포함한 다층적 성과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기반 구축기·시범 운영기·확산·고도화기의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정책브리프 제1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최대 90만원 지급, 출산 후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전주시가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위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공고일(1월 21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전주시

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본인이나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여성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경우

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남성은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이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보건소 "4월, 마음에도 봄이 오나 봄"

웃음테라피·치유요가 등 10가지 테마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2026년도 4월 전주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관계회복지원'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8일 전주시

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일상회복을 위한 10가지 테마 '4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혔다.

마음치유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정서 안정(치유의 정원·치유요가·웃음테라피·놀이치유) △관계 회복(온가족 예쁜 말 잇기·에니어그램) △자기 탐색

(미술치유·마음의 지도) △찾아가는 마음치유 △청년 자기 탐색과 성장 등이다. 김 보건소장은 특히 기타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참여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고 프로그

램은 무료다. 아울러 김 보건소장은 매일 새로운 주제를 넣어 다채로운 시민 참여 행사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관심있는 시민은 전주시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상호 존중' 일터 만들기 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직급별 맞춤형 교육 진행

전주시는 '함께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8일과 9일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직급별로 직면하는 역할과 상황의 차이를 반영해 6급 중간관리자와 7급 이하 실무자로 대상을 구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시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 행정을 구현한다는 구상

이다. 교육에는 배정에 어울림교육개발원이 강사로 초빙돼 공공부문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원인과 판단 기준, 사건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올해 교육은 직급별 특화 교육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봄날의 설렘 전주에서 동행하다”

11~12일 전북대 대학로·실내체육관서 동행축제 개막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2026 4월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오는 11일부터 12일 까지 전북대학교 대학로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 위해 '20년부터 개최해 온 대

한민국 대표 소비촉진 행사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는 중동전쟁으로부터 벗어난 소비심리 위축 선제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2026 동행축제는 전주에서 전국 단위 개막행사가 열리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026 4월 동행축제'는 오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어진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전시·판매전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관련해 전북대학교 대학로 일대에는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 △캡슐 뽑기 △포토존 등 여러 유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이후 오후 6시부터는 전주실내체육관의 공식 개막식과 함께 '상생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콘서트에는 △멜로랑스 △옥상달빛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띄운다. 콘서트 동행축제 취지에 맞춰 현장 판매전에서는 1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3100명 규모 K-POP 상생 콘서

트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증대 도움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여기에 동행축제 기간 전북지역 △전주 이팝나무 축제 △남원 춘향제 △익산 서동축제 △임실N팻스타 등 총 7개의 지역 행사와 연계해 전북 전역에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부안농협 '농협생명 연도대상 전국 1위' 직원 개인부문서도 성과

농협생명 연도대상 1위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개인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과가 이어졌다. 허창록 과장 우수상, 김은정 과장 웰린저상 등을 각각 수상하며 부안농협 직원들의 현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원철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고객의 애임없는 성원과 임직원의 노력 끝에 얻은 값진 성과”라며 “부안농협은 조합원 실의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 농축협 조합장 '농협법 개정안' 건의문 채택

“농협의 자율적 혁신과 민주적 운영 바탕 돼야”

전북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현재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개정안에는 농업인과 일선 조합의 목소리가 더욱 세밀하게 반영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은 설립 이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농협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스스로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특히 “농협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제도적 변화에 앞서 조직 내부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법안 개정의 속도보다는 내실있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농축협 조합원과 농업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농협은 언제나 농민의 곁에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 왔다”며, “이번 건의문 채택으로 농협법 개정안이 더욱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상의 '차세대 경영자 모임 창립' 출범식

전북 경제 경영인 한자리 대모임 다짐

'차세대 경영자 모임 창립 출범식'이 전주상공회의소 7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경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일 차세대 지역경제 리더 발굴·육성과

전주상의와의 경영네트워크 구축 지원 위한 '정출어람 프로젝트' 출범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김경태 회장은 선배 경영인으로서 연사로 나서 '차세대 리더에게 전하는 경영의 지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회장의 수심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영 철학과 위기 극복 노하우를 차

세대 경영인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전주상공회의소 김경태 회장, 주요 임원, 모임 주인공인 17명의 차세대 경영인 회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식 출범한 차세대 경영자 모임의 초대 회장으로는 (주)대광기업 신동진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임원진에는 △부회장 (유)고양산업 김셋별 과장, △산지계자전북판

매(주) 안효준 이사, 전북도시가스(주) 김동희 전무이사 △감사 (유)호남고속 김기주 부사장 △사무국장 대림석(유) 김용주 부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신동진 초대 회장은 인사말 통해 “회원사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장, 사회적기업 방문

전북지방조달청 김항수 청장은 8일 전북 완주군 소재 사회적기업인 사단법인 꿈드레잡에인협회 꿈드레잡조합장을 방문해 사회현대경제조달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기업 운영현황과 주요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공공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소민 기자

한국은행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우수 성적자 채용 시우대

한국은행 '2026년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가 개최된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2003년 개최해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했다. '2026년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 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국은행 정책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신청 및 예심자료 제출은 오는 5월 22일부터 ~ 27일까지다. 예심은 서면 방식(보고서 제출)이고 지역예선 및 전국결선은 대면 방식(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팀을 구성해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심 결과 발표는 6월 18일~19일 중 발표되며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에

선대회는 7월 13일~14일 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결선대회는 한국은행 본부 주관으로 8월 11일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경제교육-프로그램안내-통화정책 경시대회를 통해 안내되고 있다. 경시대회 대회진행 방법은 △(예심) 팀별로 제출한 '5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 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 △(예선대회) 팀별로 '7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발표(15분)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15분) △(결선대회) 팀별로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발표(15분)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20분)하는 방식이다. 시상은 지역예선 및 전국결선대회 입상팀에는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김영태 기자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 모델하우스 오픈

1순위 청약 14일

전주 북부권에 공급되는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가 지난 3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초기 자금 부담과 금융 비용이다. 이러한 흐름 속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는 실수요자 중심 조건을 제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가 분양가의 10% 수준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구조다. 청약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통상 중도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는 실질적인 체감 분양가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금리 변동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더욱 의미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분양가 역시 경쟁력을 갖춘 수준

으로 책정됐다.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의 분양가는 33㎡당 약 1300만 원대로, 최근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을 낮춘 가격대로 평가된다. 단지는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256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1층부터 지상 22층까지 총 6개 동, 35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는 전용면적 84㎡ 단위로 구성으로 계획됐으며 84㎡A 315세대, 84㎡B 37세대로 공급된다. 설계 측면에서도 실거주 편의성을 고려한 요소들이 적용된다. 관상형 구조와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4Bay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데크형 지하 주차장과 공원형 단지 구성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한 점도 특징이다.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하나로마트 전주점과 이마트 전주점 등 대형 유통시설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지방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조촌초, 반월초를 비롯한 교육시설 접근성도 양호하다. 직주근접 여건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에는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향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배후 수요 형성이 기대된다. 사업 안정성 역시 확보됐다. 해당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 단지조감도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 일정은 이미 본격화했다. 특별공급은 오는 13일, 1순위 청약은 14일, 2순위 청약은 15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22일이다. 이후 정당 계약은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가격은 전주시 및 전북특별자치

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과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이 없고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의 의무도 적용되지 않아 비교적 유연한 조건을 갖춘 점도 특징이다. 한편 견본주택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행-다날핀테크,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7일 다날핀테크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및 정산 플랫폼의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은 다날 핀테크의 SaaS 기반 플랫폼 '이음(IEUM)'을 활용해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가맹점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E2E(End-to-end) 프로세스를 실거래에 준하는 환경에서 검증한 것이다. 은행의 준비금 보관 등 기존 금융 구조는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기록, 대사, 자동화 영역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했다. 전북은행은 외국인 근로자 고객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실증을 외국인 특화 금융 서비스 고도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이번 1차 기술 검증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 및 해외송금 2차 기술검증을 준비 중이다. 국내 결제 편의성과 해외송금 효율성을 함께 검증해 외국인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실증이 목표다. 다날이 추진 중인 바이낸스페이(Binance Pay)와의 연계도 주목된다. 바이낸스페이는 외국인 사용자가 보유한 USDT 등 가상자산으로 국내 가맹점 결제가 가능한 글로벌 결제 사업자로 향후 이음 플랫폼을 통한 정산 및 송금 처리와 연결될 경우 전북은행의 외국인 고객 서비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술검증은 실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며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디지털융합센터 '디지털전환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디지털전환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해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디지털 전환 정보교류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에 분산돼 있는 디지털·AI 정책과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본 시스템은 정책-기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정보교류 허브'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SI 기반 정책 및 사업정보 수집·분석·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사업정보' △도내 디지털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정보와 기업 간 협업 및 기술 매칭을 지원하는 '기업정보' △사업별 분산된 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사용자 관리 체계를 구축한 '주요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 과거부 산하 NIPA, NIA, IITP를 비롯해 산업부(KIAT, KIRIA), 중기부(TIPA, KOSME), 전북TP 등 총 8개 기관의 사업정보를 연계해 공지사항, 입찰공고, 사업공고 등을 자동 수집하고 일일 단위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체육회 “체육 예산 독립 필수”

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 필수...예산 지원 제도화 통한 독립 이뤄져야

전북도체육회가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예산 독립’을 촉구했다. 예산 독립은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8일 도체육회는 전북 체육이 한국 체육의 중심이 되고 체육 강도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도 체육회 뿐만 아닌 체육인들의 바람으로 앞서 진행했던 ‘찾아가는 14개 시군체육회 간담회’에서도 안정적인 예산이 최우선으로 뽑힌 바 있다. 도 체육회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전제조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체육단체에 운영비를 의무 지원해야 하지만 지원 규모가 명확치 않아 운영의 자율성이 현실적으로 제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인들은 체육진흥 사업 및 활동 지

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제도화를 통해 예산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이뤄지면 체육단체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강화되는 한편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선순환하는 선진 체육시스템 구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36 하계올림픽 유치하는 도시에 걸맞는 가정 전북종합스포츠타운 조성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체육단체(체육회 도종목단체)와 종목 훈련장, 종합트레이닝장, 실내체육회관,

다목적 홀, 선수 숙소 등을 집적화 하자는 것.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경우 체육행정 및 시설이 집약 돼 전북 체육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급변하는 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예산 독립이 이뤄지면 전북체육 지변 확대 및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인들의 복지와 행복추구권도 충족할 것이다”며 “전북 체육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선거철 ‘정치 중립’ 집중 단속

6월 3일까지 가짜뉴스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직원이다. 도교육청은 특정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관여뿐만 아니라, SNS상에서 특정 후보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까지 엄격하게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특정 경선후보

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 관여, 직원 및 선거구민 대상 후보자 업적 홍보,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 및 유포,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소극행정 등이다. 위반 사례를 발견한 도민과 교직원들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며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책임감을 높여주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스포츠클럽, 소년체전 태권도 전북대표 선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소속의 선수들이 우수한 기량으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자는 전주스포츠클럽 초등부 해비급 차승현(삼천초, 문형효코치), 전북특별자치도스포츠클럽 중등부 -41kg급 박경서(삼례중학교), -45kg급 김민준(전북중학교), -53kg급 박지훈(전북중학교), -57kg급 양승호(전북중학교)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스포츠클럽(감독 정상욱, 코치 정상윤)선수들은 그동안 꾸준한 훈련과 자기관리로 기본기와 경기력을 탄탄히 다져왔으며, 이번 선발전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과 투지 있는

플레이로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며 최종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상욱 감독은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묵묵히 노력해준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고 고맙다”며 “항상 결에서 대회와 훈련을 위해 애써주시는 학부모님들께는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또 “전북중학교, 삼례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담당 교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상윤 코치는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다”며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



인 훈련과 컨디션 관리를 통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사운드베이스 힐링 명상’ 체험

국립전주박물관은 ‘사운드베이스 힐링 명상’ 문화 체험행사를 마련해 개최한다. 명상 행사는 “태조의 숨, 나의 숨(영의 고요 속에서 만나는 명상적 휴식 사운드베이스)” 주제로 기획됐다. 행사는 오는 18일 아침 8시, 9시 10분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특히 현재 전주와 조선왕실에서 전시 중인 테마전시 ‘기록의 보고寶庫를 열다’와 연계했으며 큐레이터와의 대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참여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당 30명씩 총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사전예약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이어지며 체험은 무료로 운영된다. ‘사운드베이스 힐링 명상’은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태조 어진의 상징성을 현대적인 치유의 서사로 풀어낸다. 여기에 태조 어진의 정화와 집중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조선 왕실 문화 속 고요와 정신적 수양의 의미를 현대의 명상 경험으로 재해석한다. 체험은 아로마 향 속에 호흡을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푸는 스트레칭이 병행된다. 이어 한국 방재유기 심잉볼의 소리와 25현 가야금 연주를 라이브로 감상하면서 국악의 선율이 전하는 공명이 몸을 이완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본격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전북 고비살살’ 사업이 8일부터 열리는 특별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추진형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화환경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 총 9개 시군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 고비살살(예술이 가잡네)’은

‘구석구석마다 살살이’라는 의미를 담아, 전북 전역 어디서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 3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별 운영단체를 중심으로 공연, 체험, 전시, 캠페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문화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군산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 선정

재단)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에 선정돼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가가호호’ 사업은 가족과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하는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재단은 올해 군산만의 특화 모델인 ‘인사이드 아웃, 군산(Inside Out,

Gunsan)’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들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의 감정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외부로 표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족 간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오는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군산시 내 가족센터, 청년플, 대학교, 재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에서 운영된다. 재단 관계자는 “2년 연속 공모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만의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이번 사업이 가족 간 정서적 소통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11일 ‘KBS 국악한마당’ 연다

고창군이 KBS한국방송과 함께 국악한마당 공연을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고창읍성 특설무대에서 진행한다. 국악한마당은 국내 최정상 국악인들의 전통 판소리, 민요, 연희 등 다양한 국악 레퍼토리를 열린 콘서트 형식으로 담아낸다. 이날 공연은 구성진 소리 한바탕을 보여줄 박애리, 남상일 명창과 국악과 트로트의 만남 가수 양지은, 민혜성 명창과 프랑스의 소리꾼 마로 포트, 사안송 화영교방송 전승 보존회, 전통예술 아리향이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녹화 방송은 오는 5월 2일 낮 12시10분부터 KBS 1TV에서 전국 방송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동양의 문 세계를 매혹시킨다
훈향제 남원 제96회
 2026. 4.30 (목) ~ 5.06 (수)
 광한루원 및 요천변 일원

정읍 샘고을시장, 오는 14일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개최

정읍시 샘고을시장이 오는 14일 오후 2시 평화주차장 특설무대에서 'JTV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를 열고 시민들에게 흥겨운 볼거리와 풍성한 경품을 선사하며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JTV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는 정읍 고을시장 전통시장에 다채로운 볼거리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해 방문객의 발길을 이끄는 인기 행사로, 침체된 상권에 생기를 돋우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시민 노래자랑, 초청 가수 축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진행 순서로 꾸며진다. 특히 희극인 황기순의 유쾌하고 맛깔나는 진행과 함께 진시몬, 미스김, 이희수, 박종연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노래자랑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샘고을시장 상인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심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학수 시장은 "봄을 맞아 정이 넘치는 샘고을시장이 시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로 변신한다"며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전통시장의 매력도 느끼고 일상의 스트레스도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오는 16~17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익산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오는 16~17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과 사례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1일차 교육은 '사회적기업의 제도 및 진인'을 주제로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익산청년시청에서 진행된다. 사회적기업 설립 절차와 제도 안내,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2일차 교육은 오는 17일 오후 1시 20분 익산북부청사에서 열린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반 에너지 사업과 소득 창출 모델을 소개하고, 이어 '협동조합의 이해'를 주제로 협동조합의 개념과 설립·운영 원리를 설명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익산시민은 누구나 오는 15일까지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익산시청 정책개발담당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드림스타트, 가족 요리 교실 '말랑쿠키 탐험대' 업무협약식 개최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8일 아동들의 정서 발달과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가족 요리 교실 '말랑쿠키 탐험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요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식재료 탐색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말랑쿠키 탐험대'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운영되며, 드림스타트 이용 유아 및 초등 아동 10가정을 대상으로 피자, 멘보샤, 세계 요리 체험, 케이크 만들기 등 총 10회에 걸친 맞춤형 요리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총 275만 원의 예산 중 메이킹업 쿠킹랩에서 25만 원 상당을 후원하고 시비 250만 원이 더해져 추진되며, 지역 업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아동들이 행복한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의겸·김재준 "현대차 9조 투자 공조"

문서 아닌 현실로... 두 후보 새만금 투자 공동 대응 선언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8일 정책 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정책 중심의 공조 체제를 구

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투자라는 거대한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과거 처럼 문서상의 약속에 그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특히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 핵심 산업이 군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능력을 기반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행정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실행 중심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날 두 후보는 "구체적으로는 군산시장 직속 '현대차 원스톱 지원단'을 설치해 인허가,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 투자 성과가 지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들은 "9조원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수"라며 "군산을 향후 10년간 지속 가능한 젊은 산업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상수관망 정비 526억 투입

노후관 68km 교체... 우수율 85% 목표

익산시가 시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구도심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263억 원을 포함해 총 526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2031년까지 사업대상지의 남은 수도관 68km를 교체해 우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평화동, 마동, 동산동 등 구도심(금강 급수구역)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357억 원을 들여 52km 구간을 정비한다. 합열을 등 북부권(금마 급수구역)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69억 원을 투입해 16km 구간의 노후관을 바꿀 예정이다.

현재 해당 지역은 우수율이 60% 이하로 낮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



<사진=익산시>

는 단계적 정비를 통해 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앞서 이미 신흥 급수구역에서 진행한 현대와 사업을 통해 우수율을 90%대까지 끌어 올린 약 23억 원의 예산을 아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600만 톤의 누수를 막고, 수돗물 생산비 약 6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시는 올해 중 정부와 사전 기술 검토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지영 상수도사업장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확대해 우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중동 상황 대응 체계 풀가동

물가·석유·기업운송 3개 특별반 편성

정읍시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대응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민생물가안정반, 석유가격안정반, 기업운송지원반 등 3개 반을 편성해 민생 물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에는 일자리경제국을 중심으로 '비상경제 대응 특별 전담 조직(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5개 부서 7개 팀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유지와 현장 중심의 의견 청취 확대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우선 유가 급등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운영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면 확대해 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 부문 역시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5부제 자율 참여를 적극적으로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수시로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OPINET)'을 통해 실시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채광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한국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현

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생활 물가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 불안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돕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중동 상황과 관련된 피해 접수와 맞춤형 지원 사업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농업 분야 역시 농자재 가격 상승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농업인과의 현장 소통을 늘려 애로사항에 수시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민생 경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정읍시는 시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총총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빛물받이' 집중 정비

송학동 등 취약 지역 배수 기능 선제 확보

익산시가 2026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 지역과 상습 막힘 구간인 빛물받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빛물받이란 비가 올 때 도로 위의 물이 하수도로 잘 빠져나가도록 만든 '빗물 구멍'이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 청소를 끝내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침수 피해가 잦은 송학동(500개소)과 상습 침수 구역(1,180개소)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시는 고압 청소 차량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체 인력 12명을 3개 조로 편성해 권역별 순찰과 정비를 함께 한다.

빛물받이를 막고 있는 덮개와 낙엽, 각종 쓰레기를 현장에서 신속히 제거해 빗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미리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막힘없는 빛물받이 만들기'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빛물받이 위에 고무 덮개를 씌우거나 담배꽂이 등을 버리지 않도록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한다. 덮개를 씌우면 비가 올 때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지 못해 도로에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2025 군산공당보리축제

<사진=군산시>

'군산공당보리축제' 24일 개최

26일까지 3일간 열려

군산시가 봄을 맞아 지역 대표 농업축제인 군산공당보리축제를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제21회를 맞이한 군산공당보리축제는 '보리랑 봄이랑, 21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따뜻한 봄날과 푸르게 물든 보리밭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공당보리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환찰쌀보리를 중심으로 농업의 가치와 농촌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축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

러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체험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기간에는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아이들이 자연과 농촌의 삶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세대 공감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영유아에 '우리 밀' 무상 지원

원아 1285명에 공급

정읍시가 성장기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을 돕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40곳에 1800만원 상당의 '우리 밀' 가공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우리 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보육 및 교육 시설에 다니는 원아 1285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우리 밀 가공품을 무상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품목은 아이들의 입맛에 맞고 급식 활용도가 높은 부침가루, 국수, 밀쌀 등으로 구성됐다. 제공된 식재료들은 각 교육 시설의 식단표에 맞춰 다양하고 맛있는 간식과 식사로 조리돼 아이들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안전한 우리 밀 제품 공급은 성장기 아이들의 든든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재배 농가와 가공업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우리 밀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는 건강한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공공자전거 이름 시민이 직접 짓는다

24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QR코드 방식의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시스템 개편에 맞춰, 시민이 직접 이름을 짓는 '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군산시 누리집 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모는 군산시 공공자전거를 대표할

수 있는 4자 이내의 이름과 함께, 20자 이상의 제안 취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독창성, 적합성, 대중성을 기준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2차 심사에서는 시민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심사는 총 3명(팀)에게 수여되며, 최우수상 1명에 군산사랑상품권 50만원, 우수상 1명에 30만원, 장려상 1명에 20만원이 주어진다.

최종 선정된 이름은 향후 군산시 공공자전거의 공식 명칭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 시설 점검

정읍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선제적인 축사 시설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철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축 폐사와 농가 생계 위협을 사전에 꼼꼼히 차단하고자 이번 현장 점검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2025년) 정읍 지역에 내리는 폭염으로 인해 돼지 32건, 닭 31건, 오리 2건 등 총 6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돼지 6606마리, 닭 7

만 5064마리, 오리 1014마리 등 총 8만 2674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재해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과거 피해 농장과 저지대, 하천 주변 축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축사 내 배수 시설, 전기 설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빗물없는 사전 점검과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육 환경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 '친환경 산악관광지' 개발 착수

총사업비 300억 투입 자연·지역 자원 연계 명품 관광지 조성

김제시는 모악산도립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모악산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8일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도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모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꽃빛 낭만 가든존' 등 3개 테마, 9개 세부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공원계획 변경,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모악산 일원이 사계절 관광 여건을 갖춘 명품 관광지로 조성돼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정전경

<사진=김제시>

정 등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모악산 일원이 사계절 관광 여건을 갖춘 명품 관광지로 조성돼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지방세정 실적 3년 연속 '우수'

세무행정 우수성 입증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세무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

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무조사 실적, 마을세무사 운영, 체납자 채권 확보 등 2개 분야 14개 평가 항목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고창군은 철저하고 우수한 세무행정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군부 최우수기관 선정과 인센티브 11백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고창군은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역관광조직 평가' 전국 최우수

1단계 1위 선정 및 우수사례 발표

김제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사업' 성과평가에서 1단계(1~2년 차) 부문 전국 최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8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이현서 부시장이 참석해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역관광추진조직과

지자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DMO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사업 도입 및 도약 단계인 1단계 참여 지자체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성과워크숍에서는 김제 DMO(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이사장 최재문)와 함께 추진한 '김제형 체류형 관광 모델'이 전국 최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시는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안착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밀착형 관광 콘텐츠 발굴 등의 성과를 발표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부시장은 "이번 전국 최우수 수상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한 관광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빛낸 소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탄탄한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생활인구가 머무르고 즐기는 매력적인 관광 도시 김제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번 전국 최우수 수상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한 관광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빛낸 소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생활인구가 머무르고 즐기는 매력적인 관광 도시 김제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번 전국 최우수 수상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한 관광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빛낸 소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생활인구가 머무르고 즐기는 매력적인 관광 도시 김제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중간집 조성 공모 선정

환자 복귀 전 적응도와 휴 사무실을 리모델링 계획이

고창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 조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간집'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한 고령자나 환자가 자택으로 복귀하기 전, 단기간 머물며 일상생활 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주택이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5000만원의 예산은 대산면 예비군대대 유

휴 사무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중간집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방문건강관리를 비롯한 보건 의료 외에도 방문목욕, 이불 빨래 지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 지원해 대상자의 일상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중간집을 시작으로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고창군의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에너지 위기 극복 동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김제시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김제시 전 직원에 적용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 및 청사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량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및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영유아 통학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출입구 차량 통제 및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차량 2부제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복지 네트워크 강화

6개 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

부안지역 6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6일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 및 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단순한 기관 간의 약속을 넘어, 부안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현장에는 다닐열지역아동센터 김주은 센터장, 백산지역아동센터 김종업 센터장, 부안지역아동센터 이춘이 센터장, 운호지역아동센터 최은숙 센터장, 이음지역아동센터 소동하 센터장, 장북지역아동센터 이예선 센터장을

포함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6개 센터장은 날로 희박해지는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자연스럽게 봉사를 접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각 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6개 센터는 향후 지역사회 환경 정화 활동, 홀몸 어르신 나눔 활동 등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사진=고창교육지원청>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2026년 3월 1일자 학교장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 소통 중심 행정에 나선다

이번 학교 방문은 학교 교육활동 관련 민원 청취 및 지역 사회 교육 현안을 파악하며, 10대 핵심과제 등 주요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지원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한숙경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바탕으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전환 촉구"

새만금 부안지역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용지를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안군민들의 요구가 정부에 공식 전달됐다

새만금RE100국가산단부안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이하 알부유추진위)는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대신해 면담에 나선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만나 부안군민 3만2,617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위원장단은 "새만금 인근 지역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력 생산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부안이 유일하다"며 "위도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고 계획 간척단지 일원에서 부안 주민들이 참

여하는 육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산업용수 또한 풍부해 RE100 국가산단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전북자치도 행정과 인연이 깊어 새만금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어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며 "추진위원회 설명을 듣고 보니 RE100 국가산단으로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무총리실을 통해 청와대에 서명부를 최종 전달하며 새만금 부안지역의 RE100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양성평등등, 성평등 사회 실현 위한 27개 세부 과제 논의

김제시는 8일 시청 2층 상환실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김제시가 수립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27개 세부 과제에 대한 심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시행계획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상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개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되며, 총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전년 대비 '돌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를 강화해 아동 돌봄 지원 정책과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실시한 '2026년 김제시 양성평등정책 지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법인의 사업에 대해 사업 목적의 적합성, 타당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2개소 건립

남부안농협·하서농협... 각각 5억 원씩 투입

부안군은 2026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에 남부안농협과 하서농협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소당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부안농협과 하서농협은 해당 사업을 통해 농업 근로자용 기숙사를 조성해 안정적인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 신축이 아닌 마을 내 방치된 폐건물이나 미사용 창고 등 유휴시설을 정비·활용하는 방식



하서농협 리모델링 완료 후 예상 조감도

<사진=부안군>

으로 추진돼, 지역 환경 개선과 공간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부안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 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유희태, 관제 투기 의혹 반박 “흑색선전”

유희태 예비후보 “허위 법적 대응” 차명 토지매입 의혹 전면 부인 “공공사업애국물증없는의혹제기”

완주군수 경선을 앞두고 제기된 유희태 예비후보의 ‘관제형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과 왜곡 보도가 결합된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유희태 예비후보 측은 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 자료를 냈다.

먼저 핵심 쟁점인 ‘차명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법인은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일반 법인으로, 유 후보와 지분·경영 등 어떠한 관계도 없다”며, “차명 거래 역시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명부와 세무자료 등으로 즉시 확인 가능한 사안을 근거 없이 의혹으

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도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유 후보 측은 “경천저수지 일대 사업은 특정 시점에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라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조성 계획의 연장선”이라며 “전임 군수 시절부터 검토·추진돼 온 공공사업을 개인 이익과 연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톳길·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정비 사업”이라며, “풀을 베고 환경을 정비하는 수준의 사업을 두고 특정 토지 가치 상승이나 이익 추구를 연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가 상승” 주장에 대해서도 “역측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인 공공사업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를 곧바로 특정 개인 이익으로 단정하는 것은 심각한 논

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의혹 제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입증 부족’을 꼽았다. 실제 관계나 자금 흐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물증은 제시되지 못했으므로 확인됐다.

유 후보 측은 “의혹은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추정과 상상만으로 ‘관제 투기’라는 자극적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유 예비후보 측은 “해당 언론사는 최근에도 허위사실 보도도 고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기사만 바뀌 유사한 내용의 음해성 보도를 반복했다”며,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비방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원=김명곤기자

순창군민의 날 17일 개최...전통·화합 한마당

순창읍 중앙도로 일원서 개최 셔틀버스·안전관리 대책 추진

순창군은 오는 17일 순창읍 중앙도로 일원에서 제64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민과 출향인,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며, 기념식과 전통문화행사, 체험 프로그램, 군민화합 음악회,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청소년 어울림 마당과 골목 페스티벌, 전통놀이 체험, 무료 먹거리 부스 운영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지역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어 순창의 대표 전통행사인 축동행렬과 육천줄다리기(고싸움), 군민화합



<사진=순창군>

기원제, 민속놀이 경연대회 등 전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오후 6시에는 군민의 날(효열장 아무 우짜가리, 애항장 황의옥, 공익장 권오준) 감사패 시상과 군민헌장 낭독 등이 포함된 기념식이 진행되며, 저녁에는 군민화합 음악회가 이어진다. 이날 음악회에는 박서진, 김태연, 김성환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해 행사 분위기를 한

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음악회 이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 가 펼쳐져 군민의 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순창문화원은 행사 당일 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교통·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관광, 4년 연속 DMO 선정 ‘저력 입증’

민관협력 관광 거버넌스 구축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강화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사업’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동시에, 4년 연속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로서의 저력을 증명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 주도형 관광 협력 체계(거버넌스)를 육성하는 국가 공모 사업이다.

이번 우수기관 표창과 4년 연속 사업 선정은 완주군이 그동안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온 노력을 대외적으로 높게 인정받은 결과다.

군은 지난 3년간의 사업 기간에 지역 맞춤형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지역 관광 업계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기획 사업을 전개해 최우수 기관 2회, 우수기관 1회 수상을 기록했다.

군은 4년 연속 선정이라는 탄탄한 기

반과 이번 우수기관 선정의 동력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관광추진조직 사업과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확고히 다지는 방침이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은 “앞으로도 완주군민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머물고 싶은 관광 도시 완주’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산내 입석지구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 돌입

입석리 일원 공사 올해 준공 목표 20억 투입 기초 인프라 확충

남원시는 산내면 입석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해빙기를 맞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이번 사업은 열악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1,556백만 원을 포함해 총 2,016백만 원(도비 138, 시비 322)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현재 노후 마을회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회관 신축 및 슬터 조성 △마을안길 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 △CCTV 및 안내판 설치 △슬레이트 지붕 정비 및 집수리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협소했던 마을안길 정비로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CCTV 설치와 슬레이트 지붕 정비를 병행해 재해 및 범죄 예방 효과가 거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들어설 마을회관과 컴퓨터는 주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마을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원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 중심



<사진=남원시>

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정주 여건 개선을 기다려온 주민들을 위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춘향제 맞춰 여행비 절반 돌려준다

춘향제 연계 누리시민 지원 1인 5만원 한도 지역화폐 지급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와 연계해 관외 거주 남원누리시민을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누리시민주간 여행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누리시민’ 20만명 확보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방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제96회 춘향제 기간 남원 여행 계획을 사전 신청한 관외 거주 남원누리시민으로 오늘부터 여행경비 지원사업 전용 웹사이트(namwonnuri-tour.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로 신청 승인받은 방문객은 춘향제 기간 내 남원을 방문해 지출한 금액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5만원이며, 4인 이상 팀 단위 방문 시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표자는 축제 종료 후 10일 이



<사진=남원시>

내에 방문 인증 사진과 남원시에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누리시민 가맹점 1개소 이상 이용내역 증명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단, 주유소, 학원, 금은방,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업체에서 사용한 내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타 여행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도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모바일 남원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되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원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유가 위기 대응 강화

기존 5부제→홀짝제 확대 민원인 차량도 5부제 적용

순창군은 중동전철 장기화에 따른 국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정부가 지난 2일 자유탄보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8일부터 2부제(홀짝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부제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번호 끝 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일을 구분하여 운영된다. 즉,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운행 제한 차량의 청사 주차장 뿐만 아니라 갖길, 인근 공영주차장

등 청사 외부 주차도 단속 대상이다.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운행 제한 차량의 청사 인근 갖길 및 공영주차장 주차 등 편법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도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방문 전 해당 일자의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군민 모두가 협조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재 및 포스터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수소차, 긴급·특수 목적 차량 등은 2부제와 5부제에서 제외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번호 구분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미디어센터, 전미협 ‘올해의 우수센터’ 선정

전국 45개 중 미디어 문화 ‘성과’ 교육창작지원 콘텐츠 활성화 기여

완주미디어센터(센터장 안충환)가 2026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이하 전미협)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전미협은 최근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 미디어 문화 활성화에 앞장선 완주미디어센터를 올해 우수센터로 선정했다. 전미협은 전국 45개 지역 미디어센터를 회원으로 둔 협의체로 매년 우수한 성과를 낸 센터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개관한 완주미디어

어센터는 미디어교육과 창작지원, 공동체상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로컬콘텐츠 제작과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아카이브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라디오녹음, 영화제작, 마을영화 등 8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1만 3,000명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했다.

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과 마을 상영 등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노력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춘향제 자원봉사단 발대...축제 지원 본격화

29단체개인 등 1600명 현장 투입 원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제96회 춘향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축제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춘향의 맛, 세계를 매혹시키자’라는 슬로건 아래,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할 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참여자들의 사명감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29개 봉사 단체 관계자와 개인 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자원봉사 운영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대회사 및

격려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열리는 제96회 춘향제에는 총 1,600여 명의 봉사 인력이 투입된다. 29개 단체 회원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축제 기간 보행자 보호, 수거 프로그램을 편성해 관광객의 물입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체류시간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자원봉사 서포터즈’를 별도로 운영해 눈길을 끈다. 지역 청소년들이 축제 현장 모니터링과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2026년 사회조사 실시 군민 삶의 질 지표 마련

순창군은 10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2026년 순창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순창군 사회조사’는 전북도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매년 공동 추진하는 통계 조사로,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총 20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며, 9일 준비 조사를 시작으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관내 전체 가구 중 표본으로 추출된 810개 가구의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조사 방식은 조사원증을 패용한 전문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로 이루어진다. 최종 조사 결과는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을 거쳐 12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가구·가족, 도 및 군 특성 등 7개 분야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생활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지역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세계청년대회 앞두고 ‘글로벌 성지’ 도약 박차

완주군이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이서면 남계리 일원에 있는 초남이성지를 세계적인 성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남이성지는 호남 지역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이자 한국 최초 순교자 유해가 발견된 역사적 장소로, 초기 신앙 공동체 형성과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 공간이다. 군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국내외 순례객 방문이 늘고 생활 인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남이성지의 남계리 유적은 순교자 유해와 유물이 확인된 대표적인 유적으로, 이 일대는 조선 후기 종교 정책과 사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한국 천주교사 연구의 핵심 자료로 평가받는다.

군은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남계리유적의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세계청년대회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남계리유적 보수정비를 통해 순교자 무덤 등 유구 정비와 배수로 개선, 안내 체계 구축을 추진했으며, 초남이성지 진입도로인 ‘초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로 2027년까지 진행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요천 음악회 성황 춘향제 ‘사전 봉업’ 효과

남원시가 개최한 ‘2026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가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축제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96회 춘향제’를 알리는 사전 홍보 효과를 특별히 거뒀다고 밝혔다.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이번 음악회는 공연·체험·먹거리가 어우러진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개막식 등 관례적인 이전 행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공연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체류시간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제96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봉업’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행사장 곳곳에 춘향제 홍보 요소를 반영하고 ‘96’이라는 테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춘향제를 인지하고 축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전략은 방문객의 재방문 의식 및 축제 참여 기대감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홍보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로 조성된 축제 분위기를 제96회 춘향제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의회,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장수군의회가 8일 제384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최한주 의장은 제9대 장수군의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 동안 장수군의회가 군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신 군민들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준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들에게도 감사사를 표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제21회 대한노인회 임실군 지회장기 노인 게이트볼대회 성료

지난 3일 임실군공설운동장에서 임실군이 후원하고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지회장 이강년)가 주관하는 '제21회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성대하게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임실군 박현숙 부군수, 장종민 의장, 기관단체장, 지회 임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선수들을 격려했다.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12개 읍·면 180여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가해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진행돼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열린 경기 결과 남성팀 우승은 관촌면, 준우승 운암면, 3위 신덕면, 장려상은 오수면이 차지했으며, 여성(혼성)팀 우승은 성수면, 준우승 강진면, 3위 지사면, 장려상은 신덕면이 트로피와 시상금을 차지했다. 이강년 지회장은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승부에만 집착하기보다 승자와 패자 모두가 우승팀이 되는 축제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한의약 갱년기 관리 교실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한의약 갱년기 관리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안군보건소 아토피상담실에서 접수하며, 갱년기 건강 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운영되며, 갱년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마음수련 요가 △홍삼 즉석 체험 △올바른 자세 및 걷기 운동 △공예 수업 △약선 음식 만들기 등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갱년기 증상 정도, 건강 인식, 우울 상태, 체성분 분석, 혈액검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종료 후 사후 평가를 통해 변화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체계적인 건강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갱년기 증상은 주로 40~60대 여성의 60~80%가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치할 경우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생활·농업 아우르는 지원사업

무주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1인 2마리까지 지원

무주군이 '2026년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반려견의 몸속에 무선식별 장치를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이며, 주민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마리당 2만원으로, 지원 범위를 초과하

는 시술 비용은 반려견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지역 내 지정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원 혜택은 병원에 비치된 지원 신청서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장형 칩 시술을 받으면 적용된다.

백원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 방역팀장은 "내장형 칩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실천이자 법적 의무 사항 준수이기도 한 만큼 반려견들의 안전과 확보에 반려인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명품 반딧불 사과 생산 주력

사과 병해충 예방·방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무주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에서 "2026년 사과 병해충 예방·방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명품 반딧불 사과 생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80여 명의 사과 생산 농가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과수병해충예찰센터 장일 대표로부터 △사과 병해 피해 방지 및 극복 요령, △주요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 교육과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은 올해 사과 병해

충 예방·방제 사업추진에 1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월 2회에 걸친 병해충 예방, 사과 병해충 재배 농약 컨설팅 등에 주력한다. 이 외에도 사과 이상 기상 대응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수 안전 결실 관리 및 햇빛 차단망 지원 등을 추진해 반딧불 사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 기상 등으로 인해 사과 재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고 있지만 다양한 교육과 병해충 예방, 방제, 시설 지원 등의 사업 등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 고태봉 장인, 무형유산 보유자 신규 인정

전통 벼루 공예기술 계승 성과 지역 전통문화 위상 높여

장수군은 전통 벼루 공예기술을 계승해 온 고태봉 장인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장수녹반석벼루장' 보유자로 신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정은 장수 녹반석 벼루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공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장수녹반석벼루장'은 곱돌계열 석재 가운데 녹색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장수녹반석을 활용해 벼루를 제작하는 전통기술이다.

해당 종목은 지난해 5월 2일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고시됐으며, 국가유산포털에도 등재돼 전통 공예로서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보유자 신규 인정은 종목 지정에 이어 지난달 6일 전승 주체까지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형유산 문화체육과장은 "고태봉 보유자의 신규 인정은 장수 녹반석 벼루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이를 계기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 경품 쏟아진다!

11일~12일 옥정호 벚꽃축제 역대급 현장홍보 이벤트 마련

임실군이 이번 주말 열리는 임실군 옥정호 벚꽃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역대급 현장 이벤트를 마련한다.

군에 따르면 군정 홍보컨트론팀이 역할을 하는 홍보담당관에서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리는 '2026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를 앞두고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TV' 새 단장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 위한 현장 참여 이벤트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 행운의 룰렛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벚꽃이 만개한 옥정호의

절경을 배경으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체험과 유익한 정책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참여형 축제 로 기획됐다.

축제의 중심무대인 옥정호는 벚꽃이 절정을 이루며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옥정호의 물안개와 벚꽃이 어우러진 수변 산책로와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은 관광객들에게 임실만의 특별한 봄 풍경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러한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임실군은 최근 새롭게 개편된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TV'를 알리기 위한

현장 구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개편에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 등에 출연한 배우 이유진이 참여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축제 방문객들은 현장에서 간편하게 임실군 SNS를 구독 인증만으로도 소정의 홍보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이번엔 각종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오프라인 축제와 온라인 홍보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방문객 참여를 유도하는 '행운의 룰렛 이벤트'도 운영된다. SNS 구독 인증 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룰렛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보냉백, 여행용 세면도구, 린넨 핸드크림 세트 등 풍성한 경품이 제공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520명 외국인 근로자 도입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장수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과 라오스 근로자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으며, 안정적인 해외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난 3일에는 베트남 계절근로자 49명이 1차로 입국했으며, 입국 당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근로자들의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마약 검사, 소방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필수 절차를 진행했다.

장수군은 오는 7월까지 총 52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각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병행 추진해 농업 현장의 인력



장수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수군>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장수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며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황현철 농산업건설국장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문화 향유 프로그램 '고비살살' 운영

4월 교통 취약지역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산골영화관으로 초청

무주군이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문체부 주관 광역 단위 공모)인 '고비살살(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핀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4월 '영화 마중 우리 동네 영화관 나들이'가, 5월에서 11월까지 '찾아가는 산골극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화 마중 우리동네 영화관 나들이'는 지역 내 복지관과 어린이집, 아동센

트: 더 레전드(GOAT)가 상영될 예정이다. 5월부터는 무주상상만디쇼 일원(야외, 우천 시 실내)에서 11월까지 매월 2회씩(7월 1회, 8월 흑서기 제외) 찾아가는 산골극장도 운영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영작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상영 영화 관련 만들기 체험, 최북미술관 뮤지엄라운지 전시 관람 프로그램과도 연계 운영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제14회 최갑석 가요제 개최

4월 9일~23일 참가자 모집 5월 3일 본선 무대

임실군이 낯은 낭만 가객,故 최갑석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 14회 최갑석 가요제가 오는 5월 3일 오수외교관광지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팻스타' 기간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가요제는 '삼팔선 너머', '고향의 그림자' 등 애절한 보이소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최갑석 선생의 예술혼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요제 참가 접수는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ggamell73@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4월 26일 예심을 거쳐 최종 12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벌이게 된다.

5월 3일 진행되는 본선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뮤지컬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명품 보컬 예능, 정통 트로트의 여왕 문희옥,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의 소명, 경기민요의 현대화로 사랑받는 이미리 등 초특급 초대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흥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우수'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진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기록을 세웠다.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세수 실적 및 세정 운영과 관련한 14개 항목, 2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은 지방세 징수율, 세무조사 실적, 체납차 체권 확보 등 철저한 세정 운영을 통해 우수한 점수를 얻어 기관 표창과 함께 8백만 원의 포상금을 확보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지원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세수 실적 및 세정 운영과 관련한 14개 항목, 2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임실군은 농작업,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야외활동 중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쯤쯤가무시증이 대표적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발열·오한·구토·설사·발진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SFTS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고,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치명률이 높아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구체적인 예방법은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 입기(밝은 색 긴옷, 모자, 손수건, 목이 긴 양말, 장갑 등) △진드기 기피제와 돛자리 사용하기 △플 위에 옷 벗어놓거나 풀밭에서 웅변보지 않기 △귀가 시 전신 샤워 및 작업복 분리 세탁하기 등이다.

임실군보건소의료원장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농작업과 야외 활동 시 반드시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익산 송학동 '우리사랑교회', 백미 10kg 100포 기탁

익산시 송학동에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전달돼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익산시 송학동은 8일 '우리사랑교회(담임목사 남영환)'가 부활절을 맞아 백미 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사랑교회는 매년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남영환 담임목사는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나누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 평생학습 동아리 '손길모아' 도배봉사단, 주거환경 개선 봉사

부안군 평생학습 동아리 '손길모아' 도배봉사단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순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봉사단은 지난 7일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노후된 벽지를 새로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원들은 교육을 통해 익힌 도배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이웃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봉사단은 지난해 도배실무과정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학습동아리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배움을 개인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봉사에 참여한 한 단원은 "교육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 뜻깊었고, 작은 손길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원광새마을금고, 익산 다이로움 밥차에 성금 기탁

취약계층 식사 지원 위해 2,400만원 기탁

익산시에 취약계층 식사 지원과 지역사회 먹거리 안전망 강화에 위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8일 원광새마을금고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이로움 밥차' 운영 지원금으로 2,4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다이로움 밥차는 익산시의 대표적인 현장형 복지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순 식사 제공을 넘어 정

서적 돌봄과 안부 확인 기능까지 수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광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원광새마을금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는 8일 원광새마을금고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이로움 밥차 운영 지원금으로 2,4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익산시>



새마을운동남원시지회,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나무심기

새마을운동남원시지회는 8일 남원시 대신면 대곡마을에서 2026년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민간산림협력 캠페인의 일환으로 뜻깊은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새마을지도자남원시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남원시부녀회 40여 명이 참여해 소나무 200여 그루와 자작나무 200여 그루 나무를 식재하여 푸른 숲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정성을 담아 심으며, 환경보호는 물론 미래세대 위한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민간자원의 산림협력력을 통해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큰 의의를 뒀다. /남원=정하복 기자

"우리도 지역 사회 일원" 완주 외국인 주민, 환경정화 봉사

네팔·베트남 등 30명 참여

완주외국인지원센터가 최근 삼례읍 우석대학교 인근 원룸촌과 도로변 일대에서 '어울림 봉사단'과 함께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치며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는 네팔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주민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 쓰레기 수거와 거리 정비를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어울림 봉사단'은 외국인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유대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는 2025년 8월 봉사단 발대를 시작으로 봉돈 산업단지 환경정화, 지역축제 안전관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에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치호 고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기수리 재능기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전치호 회장(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이 최근 고창읍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기 시설 점검 및 수리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치호 회장은 지난 6일 전선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냉방



고 등 생활가전의 가동이 중단된 어르신 가정을 찾아 배선 교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고창읍의 탄탄한 복지여량을 발휘했다. 전치호 회장은 "앞으로도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서 소상공인 권익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서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치호 회장은 연합회 차원의 나눔과 더불어 개인사업자인 (유)세광 전기와 꽃의 공전을 통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평소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여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병섭 고창읍장은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생활 밀착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전치호 회장처럼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재능기부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주)원진알미늄, '전주함께라면' 후원 동참

라면 50박스 250만원 상당 후원

(주)원진알미늄(대표 원태연)은 8월 1인 가구 등 고립·은둔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후원해 달라며 전주시에 라면 50박스를 후원했다. '전주함께라면'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와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지역 내 위기가구 발

굴을 위해 전주시 6개 종합사회복지관과 2개 청소년시설에서 시민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원진알미늄은 지난해 추석 라면 100박스를 후원한 데 이어 이번에도 완주군 북합문화공간 '산속등대'를 통해 자체 개발한 라면 50박스(250만 원 상당)를 전주시에 기부하며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Advertisement for a lecture titled 'Lecture' (알림) by Jeon Chihyo, Chairman of Gochang Small Business Association, regarding the 'Share Your Skills' (재능기부) initiative. The event is held at Gochang Community Center on April 18th and 10th. Details include location, date, and time for two separate sessions.

Large advertisement for environmental awareness. It encourages the use of reusable products instead of disposable ones. It lists items to avoid: paper cups, plastic straws, plastic cutlery, plastic bags, and disposable umbrellas. It lists items to use: reusable cups, reusable bags, and reusable umbrellas. The text is in large, bold Korean characters.



남원시 노인복지관 웃음 늘고 관계 넓어졌다! 복지관이 바꾼 노년

남원시가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 일상에 변화를 만들고 있다. 여가활동 지원을 넘어 건강관리, 사회 참여, 정서지원까지 아우르는 복합 복지 기능을 수행하며 노년 삶의 활력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시가 지역 노인복지관을 단순 이용시설이 아닌 지역 돌봄과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향은 이용자 증가와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며 체험 복지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편집자주)

여가·건강·사회참여 확대 노년 삶의 활력과 만족도 동시에 높여

■ 두 복지관 중심, 촘촘한 노년 복지 기반 구축
현재 시에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과 남원시노인복지관 등 2개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은 기능과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역 노인복지 체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복지관은 교육·건강·문화·돌봄·상담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단일 서비스 중심 시설을 넘어 '노년생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동부노인복지관 이용 증가
2023년 개관한 동부노인복지관은 강당, 체육공간, 건강증진실, 식당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등록 회원 약 2,900명, 하루 평균 이용자 3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로식당 운영은 복지관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하루 평균 230명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는 무료급

식과 주말 대체식까지 지원해 결식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개인 건강상태에 맞춘 식단 제공은 어르신 건강관리와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활발하다. 정보화·외국어·생활체육 등 34개 프로그램에 년1,1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강좌와 신규 과정 도입으로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력·보이스피싱 예방·낙상 예방 교육 등 실생활 중심 안전교육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면서 예방형 복지체계를 구축했다. 의료기관 연계 건강관리, 정서 상담, 웰다잉 교육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돼 복지관 기능이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실버버스킹 공연, 농업치유 프로그램, 자원순환 활동, 실내 체육 특화공간 운영 등 다양한 특화사업도 진행되며 복지관을 문화·여가 활동 중심 공간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전문 운영 기반 종합서비스...남원시노인복

지관 성과

남원시노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노인복지시설로, 상담·건강관리·사회활동·교육·사례관리 등 7대 사업 21개 영역 10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년기 삶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복지관은 보건복지부 기관평가 전 영역 3회 연속 최우수 A등급을 비롯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가 A등급,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성과 등 다수의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을 입증해 왔다.

대표 프로그램인 시니어준행 선발대회는 신노년 문화 확산과 노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은 정보기술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치매 대상자 가정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인지 기능 유지 지원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복지관이 일상의 중심"...이용자 체감 변화 뚜렷
두 복지관 모두 여가활동 지원을 넘어 건강관

리, 정서지원, 사회참여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어르신들의 일상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신체활동 증가, 사회관계 형성, 우울감 감소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복지관이 지역사회 노인복지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시는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시설 활용도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참여형 복지 확대... "노년 삶의 질 높인다"

남원시는 앞으로 인지기원 프로그램 확대, 체험형 정서지원 강화, 의료·교육기관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복지관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려 어르신 사회활동 기회를 넓히고 공동체 관계 형성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삶에 활력을 더하는 지역 복지의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촘촘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선거홍보물! 인쇄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 해야 할 전략입니다.

Design Plan Digital photography Editorial Design Printing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6.3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JP 유 E-mail_jhchoi3075@daum.net
qp 대흥정판사 E-mail_hi056@hanmail.net
AP E-mail_ap0987@daum.net

대흥정판사